【오키나와　沖縄】

韓国語

OKINAWA JIJI PUBLICATIONS

1-3-10, Tsubogawa, Naha-shi, Okinawa, Japan

Telephone : 81-98-854-1622

Permanent Service E-mail : edit-gg@flute.ocn.ne.jp

Website: http://www.okinawabon.com/

Website: http://www.oki-jiji.com/

合資会社 沖縄時事出版

沖縄県那覇市壺川1-3-10

TEL : 098-854-1622

Home Paji://www.okinawabon.com/

Home Paji//www.oki-jiji.com/

【오키나와전沖縄戦】

№１ **『오키나와의 전쟁유적』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오키나와시사출판)**

『오키나와의 전쟁유적』내용)

오키나와는 지난 대전에서 현민을 총동원한 지상전의 전장이 되어, 20만 명에 가까운 존귀한 생명과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을 잃어버렸다.

한국과 대만•중국 등,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오키나와현 평화기념관. 그곳에는 오키나와전의 실태를 전시하고, 오키나와의 비참함과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를 전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오키나와전을 특징짓는 전쟁유적으로서 가마(오키나와 남부에서 볼 수 있는 동굴)와 호(壕)를 중심으로 조명하여,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오키나와전 당시의 사진을 다수 게재하였다. 또한, 시•읍•면(市町村) 별로 전적 지도와 현지 안내도, 일러스트 지도 등, 올컬러로 게재되어 초등학생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오키나와현의 평화학습에 빠질 수 없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오키나와의 전쟁유적』목차)

1. 일본군의 배비(配備)와 오키나와전
2. 전쟁유적으로 보는 오키나와전
3. 중부의 전쟁유적
4. 남부의 전쟁유적
5. 북부의 전쟁유적
6. 이도(離島)의 전쟁유적
7. 전쟁유적의 보존•활용
8. 전시자료목록•참고문헌

『오키나와의 전쟁유적』서지 정보)

편집: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발행: 합자회사 오키나와시사출판
발행일: 2017년 12월 1일 2016년 제5쇄 발행
정가: 본체 1,143엔+稅
ISBN978-4-903042-14-5

№ 2　**『철의 폭풍』오키나와타임즈사 (오키나와타임즈사)**

『철의 폭풍』내용)

「전쟁의 추함의 극치」로 일컬어진 오키나와전. 그 오키나와전의 실상을 기록한 오키나와전기의 원점이라 불리는 책이다. 군의 작전상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주민의 움직임과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의 시점에서 집필된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라 평가받았다. 초판은 1950년으로 오키나와 책 중에서 가장 오래 팔린 책으로서 지금도 사람들이 읽고 있으며,「철의 폭풍」이란 단어는 오키나와전을 수식하는 대명사가 되었고, 전후 오키나와인의 의식 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20년 30년 50년 후의「후기」도 수록.

『철의 폭풍』목차)

폭풍 전야
비극의 이도(離島)
중•남부 전선
히메유리의 탑(姫百合之塔)
죽음의 방황
북산의 비풍(悲風)
주민의 수기(手記)
전투경과개요
오키나와전 일지
오키나와전선 요도(要図) 등

『철의 폭풍』서지 정보)

편저: 오키나와타임즈사
발행: 오키나와타임즈사
발행일: 1960년 8월 15일 초판발행
정가: 1,458엔+稅
ISBN4-87127-001-7

№ 3　『오키나와전의 전(全) 여자 학도대』청춘을 말하는 모임(포레스트)

『오키나와전의 전(全) 여자 학도대』내용)

오키나와전의 비극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자주 언급이 되는 여자 학도대(女子學徒隊). 그러나 그녀들은 흔히 볼 수 있는 여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본서는 여학생들이 청춘을 구가(謳歌)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점차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는 오키나와. 그녀들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16세부터 17세의 그녀들은,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본서는 체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비극을 엮은 것이다. 살아남았지만 급우들을 구할 수 없었던 슬픔에 사로잡혀 전후를 살아온 그녀들의「두 번 다시 전쟁해서는 안 된다」이러한 마음을 통절히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오키나와전의 전(全) 여자 학도대 1차 세대가 남긴 것 그것은 평화』목차

머리말

전쟁 기록의 출판을 축하하며 (오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

1. 여자 학도대들의 청춘 군상
   - 사진으로 보는 과거의 학원 생활
   - 각 여학교의 개략
   - 증언

2. 여자 학도대의 오키나와전
   - 오키나와전과 여자 학도대 (후텐마 쵸케이普天間朝佳)
   - 증언

3. 여자 학도대들의 전후
   - 여자 학도대들의 전후 (후텐마 쵸케이普天間朝佳)
   - 저마다의 전후
   - 학교 위령탑 건립까지의 발자취
   -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의 설립과 그 발자취

4. 다음 세대에
   - 「청춘을 말하는 모임」오키나와전을 이어가는 전(前) 여자 학도대의 모임 (나카야마 키쿠中山きく)
   - 다음 세대에

자료편

『오키나와전의 전(全) 여자 학도대 1차 세대가 남긴 것 그것은 평화』서지 정보)

편집자: 청춘을 말하는 모임 (대표 나카야마 키쿠 中山きく)

발행일: 2006년 6월 23일

발행: 유한회사 포레스트

정가: 2,200엔+税

ISBN4-9903112-0-5

【역사歷史】

№.4 **『구스쿠 탐방 가이드 오키나와•아마미의 역사문화유산』 나카쇼 하치로名嘉正八郎 (보더잉크)**

『구스쿠 탐방 가이드 오키나와•아마미의 역사문화유산』 내용)

2000년 세계유산에 등록된 구스쿠 유산 9곳과 아마미부터 오키나와의 54곳의 구스쿠(城)을 소개한다.

구스쿠란 아마미•오키나와 지역에 비교적 높은 곳에 있는 성터로, 일반적으로 「성城」의 한자가 붙여져, 지배자의 거성으로 알려져 있다. 본서에서는 아마미부터 오키나와, 미야코 야에야마(宮古八重山)까지의 주요한 구스쿠를 사진과 지도, 그림을 사용한 개요와 역사, 전통, 유고(遺稿) 조사의 내용 등을 소개한다. 이러한 유적에 동남아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여러 문화 간의 교류의 역사, 그리고 자연과 신앙의 모습 등을 구스쿠 전반에 걸쳐서 알 수 있는 결정판.

『구스쿠 탐방 가이드 오키나와·아마미의 역사문화유산』 목차)

「구스쿠」 탐방 추천/구스쿠의 역사와 현재/구스쿠 사론(私論)

●세계유산

나키진구스쿠(今帰仁城跡), 자키미구스쿠(座喜味城跡), 카츠렌구스쿠(勝連城跡), 나카구스쿠 성터(中城城跡), 소노향우타키이시몬(園比屋武御嶽石門), 슈리 성터(首里城跡), 타마우둔(玉陵), 시키나

엔(識名園), 세화우타키(斎場御嶽)

●아마미 제도(奄美諸島)

니야토구스쿠(用安湊城), 아카기나구스쿠(赤木名グスク), 우라카미구스쿠(浦上グスク), 시찌구스쿠(七城), 칸냐구구스쿠(神之嶺城跡), 타마우둔 유적(玉城遺跡), 묘간의 숲, 운노구스쿠(面縄按司城跡), 요노누시죠칸(世之主城館跡), 요론구스쿠(与論城), 카미야키코요세키군(カムィヤキ古窯跡)

●오키나와섬·북부

쿠니가미구스쿠(国頭グスク), 하네지구스쿠(羽地グスク), 나고구스쿠(名護グスク), 야마다구스쿠(山田グスク)

●오키나와섬·중부

이하 성터伊波城跡), 아게나 성터(安慶名城跡), 이케이구스쿠(伊計グスク), 토마리구스쿠(泊グスク), 히가구스쿠(比嘉グスク), 이리구스쿠(西グスク), 치바나구스쿠(知花グスク), 고에쿠구스쿠(越来グスク), 이소 성터(伊祖城跡), 우라소에 성터(浦添城跡)

●오키나와섬·남부

미이구스쿠(三重グスク), 오모노구스쿠(御物グスク), 야라자무이구스쿠(屋良座森グスク), 오오자토구스쿠(大里グスク), 사시키구스쿠(佐敷グスク), 치넨 성터(知念城跡), 카키노하나 성터(垣花城跡), 타마구스쿠 성터(玉城城跡), 이토카즈 성터(糸数城跡), 난잔구스쿠(南山グスク), 구시카와구스쿠(具志川城跡)

●오키나와섬 주변 이도(離島)

이제나 성터(伊是名城跡), 다나구스쿠(田名グスク), 이에손의 구스쿠산(伊江村の城山), 치나하 성터(伊敷索城跡), 구시카와 성터(具志川城跡), 우에구스쿠 성터(宇江城城跡)

●미야코·야에야마 제도

니시메 성터(西銘城跡), 타카우스 성터(高腰城跡), 후루스토바루 유적(フルスト原遺跡), 이루우간 유적(イールウガン遺跡), 시모타바루구스쿠(下田原グスク)

후기

『구스쿠 탐방 가이드 오키나와·아마미의 역사문화유산』 서지 정보)

편자: 나카쇼 하치로名嘉正八郎

발행: 보더잉크

발행일: 2002년 5월 20일 발행

정가: 1,800엔+税

ISBN978-4-89982

№ 5 **『야에야마(八重山) 역사 독본』다나카 류스케中田龍介 (남산사)**

『야에야마(八重山) 역사 독본』내용)

일본의 최서남단「야에야마(八重山)」의 역사에 흥미를 느끼고 계신 분에게 추천하는 최적의 입문서. 선사시대, 영웅시대, 근세, 근현대, 전쟁, 전후로 시대를 구분하여, 총 13명의 각 분야의 뛰어난 필자들이 43편의 테마로 야에야마의 역사를 읽어 내려간다. 문화의 기원, 오야케 아카하치의 난, 인두설(人頭說), 전쟁 말라리아, 문예 부흥 등, 다양한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역사로 풀어가며, 독자는 자신이 흥미가 있는 시대, 테마를 선택해서 읽을 수 있다. 시대별로 해설 페이지를 마련하는 등, 권말에「주석」,「야에야마 역사 약연표」,「인명·지명색인」포함.

선사시대 (해설)

야에야마의 선사시대를 푸는 키워드/바다와 문화의 전파/카비라손(川平村)의 문화재/고래의 견(犬)·류큐견 -이동으로 보는 사람(문화)의 기원-

영웅시대 (해설)

지금, 아카하치의 난을 되돌아 본다 ~오야케 아카하치 사후 500년~/케라이케다구스쿠 요초(慶来慶田城用緒) 남해에서 활약한 고대 류큐기의 영웅/「고(古)류큐를 걷다」-성터·외구·교역 등-

근세 (해설)
야에야마의 사령서(辞令書)/야에야마의 촌락과 풍수/야에야마의 의료의 시초/항해에 대한 기도 일심의 손수건(一尋の手巾)/근세 야에야마의 유통 사정/야에야마의 우민츄/시대에 동요하는 쥬루쿠미치(十六日祭)/쿠사티무이/요나구니코우타(与那国小唄)의 기억/섬에서 섬으로 -봉화통신(烽火通信)-/근세의 섬과 마을 -기백성(寄百姓)에 관해서-/오야마와리(親廻り) -섬과 섬 마을과 마을의 순시-/이국선의 내항 -물가에 요동치는 세계사의 조류-/이시가키지마(石垣島) 북부의 마을들/혜성과 야에야마 고대인/ 파이파티로마전설의 마을/요나구니지마의 전설/성견석(星見石)과 인두설(人頭税)
근현대 (해설)
야에야마의 성씨/야에야마에 공헌한 이노의 해삼/폐촌·야스라 마을터에 서다/문예 동인지『세븐』의 탄생/하테루마지마(波照間島)의 인광 채굴 ~경기를 부양시키고 주민 생활을 윤택하게 하다~
전쟁 (해설)
이리오모테지마(西表島)에서의 일본군의 전쟁 범죄/군신(軍神)과 시인/신수(神水)/전쟁 유적의 보존을!/야에야마•전쟁 말라리아 보상 문제/게르니카와 전시하의 야에야마 전쟁 보도/야에야마의 전쟁과 황민화교육/
전후 (해설)
무라야마 히데오村山秀雄와 전후 야에야마의 문예 부흥/투바라마대회 창립의 때/유미(琉米)문화회관과 그 시대/발행금지책『애창가집(愛唱歌集)』/고대문화의 원형을 파악하다 -와세다대학•야에야마 학술조사단-/문화의 근원을 추구하는 오카모토 타로가 본 야에야마/

『야에야마(八重山) 역사 독본』서지 정보)

편자: 다나카 류스케中田龍介
발행: 남산사
발행일: 2004년 6월 1일 초판 제1쇄 발행
정가: 1,900엔+税
ISBN978-4-901427-11-1

№ 6 **『아시아의 바다의 류큐 동남아시아•중국•조선』 우치다 아키코内田晶子·타카세 쿄코高瀬恭子·이케야 마치코池谷望子 (용수서림)**

『아시아의 바다의 류큐 동남아시아•중국•조선』 내용)

와다 히사노리和田久徳 문하의 세 여성 사학자가 『류큐역대보안』『명실록』『조선왕조실록』에서 류큐 사료를 추출하여 이것들을 통해서 고대 류큐=대항해시대의 류큐 왕국과 동남아시아•중국•조선과의 교역의 실상을 살펴본다.

일반인에게 있어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한문 사료를 알기 쉽게 풀어서, 아시아의 바다를 둘러싼 고대 류큐의 시대를 재현하는 본서는, 역사를 자신의 영혼에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쾌락이 될 것이다. 2009년도 오키나와타임즈 출판문화대상.

『아시아의 바다의 류큐 동남아시아•중국•조선』 목차)

제1부 류큐와 동남아시아 우치다 아키코内田晶子

1. 『역대보안(歴代宝案)』에서 볼 수 있는 류큐선의 도항처

2. 류큐선이 동남아시아로 나간 이유를 생각하다
3. 명의「개양(開洋)」의 불가사의
제2부 류큐와 조선
1. 조선에 대한 류큐왕국사
2. 날조된「구변국(久辺国)」
3.「시로•후리의 난」이란
4. 슈리성은 불타였는가
5. 제1향씨의 마지막 왕「중화(中和)」
6. 표류민 만년과 정록
7. 15세기의 사키시마(先島)
8. 채경(蔡璟)이라 하는 남자
제3부 류큐와 명
1. 대류큐와 소류큐
2. 남경(南京)•북경(北京)과 행재(行在) -명 초의 공사(貢使)는 어디에 입조(入朝)하였는가
3. 명 초, 류큐는 어디로부터 입공(入貢)하였는가 -조공선은 닝보(寧波)•뤼안(瑞安)•푸젠(福建)으로 내항
4. 류큐로 내항하는 명의 밀무역선 -황소양(黃蕭養)의 난과 명의 해방대책(海防対策)
5. 푸젠(福建)시 배사(船司) -설치부터 폐지까지
6. 공사(貢使)들의 명에서의 날들 -조공의 수속과 의례의 실제
7. 아무도 모르는 회동관(会同館)의 역사
8. 류큐의 감합(勘合) 명•일본의 감합(勘合)
9. 36성(姓) 하사와 급인(給引) 통상의 청원 -류큐, 일명 통상부활교섭을 중개하다
10. 살해당한 사신과 구조된 사신 -조선에 표류한 두 척의 조공선
11. 숭정(崇禎)의 왕은사취사건(王銀詐取事件)과 흰 실 무역 금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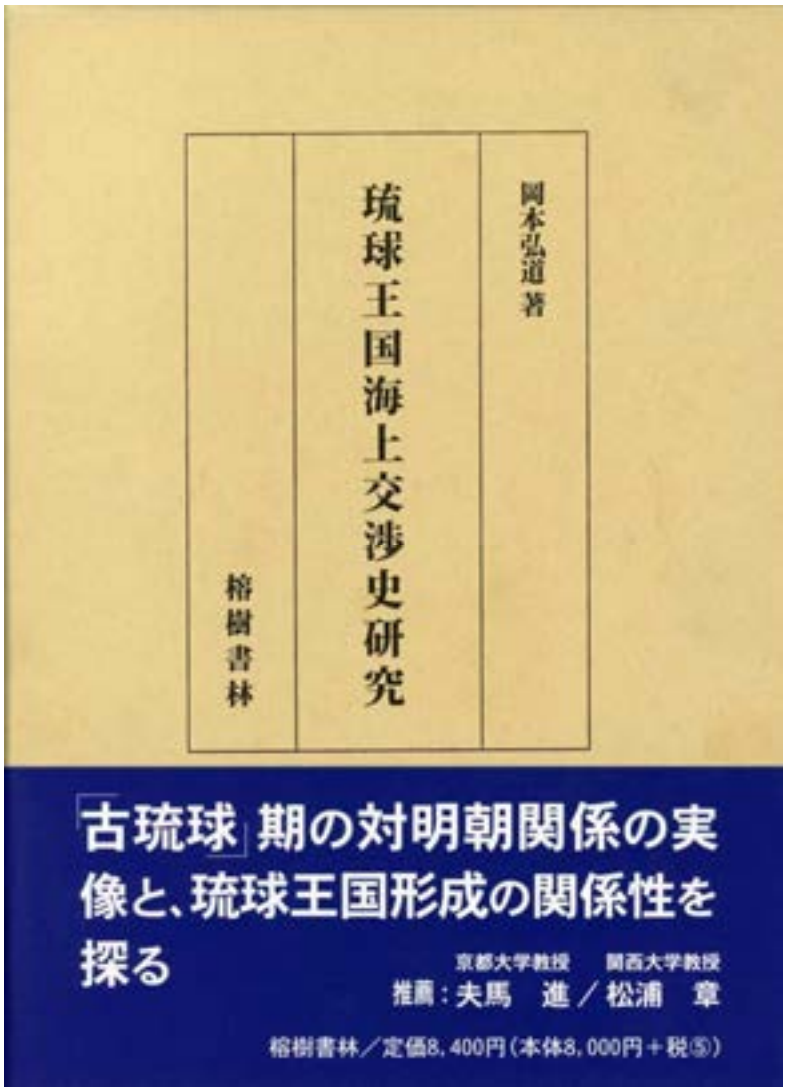
『아시아의 바다의 류큐 동남아시아•중국•조선』서지 사항)
저자: 우치다 아키코内田晶子·타카세 쿄코高瀬恭子·이케야 마치코池谷望子
발행: 용수서림
발행일: 2009년 7월 30일
정가: 4,800엔+稅
SBN978-4-89805-133-7

№ 7 **『류큐 왕국 해상 교섭사 연구』 오카모토 히로미치岡本弘道 (용수서림)**

『류큐 왕국 해상 교섭사 연구』 내용)

고대 류큐기의 류큐가 명과의 교역과 교류를 통해서 해상교역 거점 국가로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명의 대외정책, 감합(勘合)무역, 류큐관생의 실태 등으로부터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류큐사 연구의 새로운 시대를 연 기본 도서.

본서에서는 명대 초기에 있어서의 류큐의 위치와 교류의 실상, 관생의 모습, 감합무역에 관해서, 혹은 바다의 재상, 말라카 왕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서 류큐 왕국의 국가형성의 실상을 살피려 하는 것이다. 2010년도 이하후유상(伊波普猷賞受賞) 수상.



『류큐 왕국 해상 교섭사 연구』 목차)

제1장 명조에 있어서의 조공국 류큐의 평가와 그 변화

1. 명조•류큐간 관계의 통계적 추이
2. 명조의 류큐 우대 정책의 전개
3. 류큐 우대 정책의 변환와 그 요인

제2장 명대 초기에 있어서의 류큐의 관생 파견에 관해서
1.『남옹치南雍志』에 의한 류큐 파견상의 재검토
2. 제1기 류큐관생 파견의 의의
부록『남옹치南雍志』중의 류큐관생 관련 기사
제3장 류큐 왕국의 반인감합(半印勘合)과 명조의 조공 감합과의 관계에 관해서
1. 문제 설정
2.『역대보안(歷代宝案)』으로 보는「반인감합(半印勘合)」
제4장 고대 류큐기의 류큐 왕국에 있어서의「해선(海船)」을 둘러싼 제상
1.「해선(海船)」의 조달과 관리 -「자호선(字号船)」에서「土船(토선)」으로
2.「해선(海船)」의 운용의 실태 -류큐의 반인감합(半印勘合)을 단서로-
3.「해선(海船)」조직과「히키ヒキ」=「육(陸)의 해선」
제5장「신흥 통상거점 국가」류큐의 형성과 전개에 관해서
1. 조공국으로서의 성립과 영락제永楽帝의 세계 구상
2. 명조의 관여 후퇴와「신흥 통상거점 국가」의 전개
제6장 명조 조공체제에서 본 류큐의 대명 조공의 실태
1. 류큐의 조공루트의 개요
2. 류큐에서 본, 행위로서의「조공」
제7장 고대 류큐기의 있어서의 류큐 왕국의 교역품
1. 교역 형태와 교역품의 개요
2. 류큐 왕국의 교역품과 류큐호(琉球弧)

『류큐 왕국 해상 교섭사 연구』서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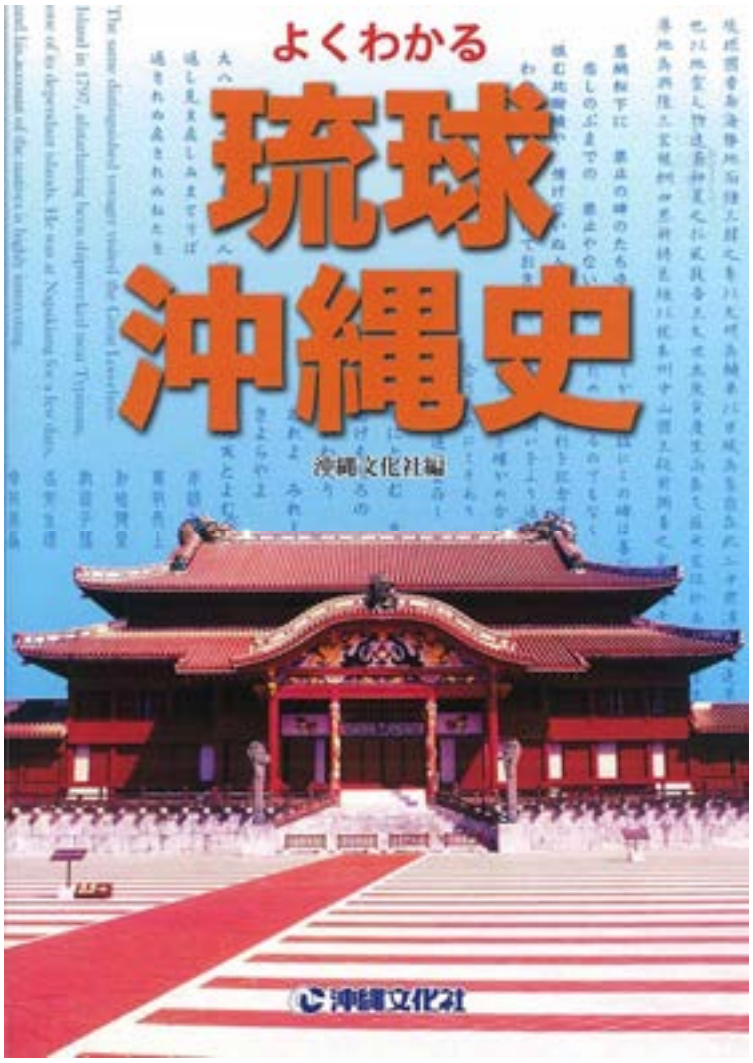
저자: 오카모토 히로미치岡本弘道
발행: 용수서림
발행일: 2010년 11월 19일 (제2쇄)
정가: 8,000엔+稅
ISBN978-4-89805-142-9

№ 8 **『쉽게 알 수 있는 류큐•류큐사』오키나와문화사 (오키나와문화사)**

『쉽게 알 수 있는 류큐•류큐사』내용)

오키나와의 인간은 오키나와를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오키나와의 역사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를 조감하여 오키나와의 역사를 조사해 보려고 해도, 너무 전문적이게 되어, 일정 레벨 이상의 지식을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본서는,「오키나와의 선사시대」에서 시작되어,「복귀 후의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실로 오키나와의 역사를 조감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도 처음으로 오키나와의 역사를 접하려 하는 초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문장과, 풍부하게 게재된 사진과 삽화 등으로 전개되어 있다. 본서는 오키나와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역사서로 독서의 영역을 넓히는 것을 추천한다.



『쉽게 알 수 있는 류큐•류큐사』목차

제1장 오키나와의 선사시대

1. 오키나와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2. 패총으로 알 수 있는 것

제2장 류큐 왕국의 탄생과 전개
1. 아지(按司)의 출현과 성장
2. 류큐 왕국의 탄생
제3장 사츠마 지배하의 류큐 왕국
1. 사츠마의 류큐 침략
2. 새로운 정치개혁
3. 오키나와문화의 흥륭(興隆)
4. 류큐 왕국의 동요
제4장 류큐 왕국에서 오키나와현으로
1. 외국선의 내항과 류큐
2. 메이지유신과 류큐처분
3. 오키나와 현책의 시작
4. 민권운동과 토지정리사업
5. 소철(ソテツ)지옥의 오키나와
6. 태평양전쟁과 오키나와
제5장 미국에 의한 오키나와 통치
1. 패전 직후의 오키나와
2. 기지 안의 오키나와
3. 복귀운동과 반환전야
제6장 복귀 후의 오키나와
1. 신생 오키나와현의 발족
2. 지방자치를 위하여
권말자료

『쉽게 알 수 있는 류큐•류큐사』 서지 정보
편자: 오키나와문화사
발행: 유한회사 오키나와문화사
발행일: 2016년 4월 21일
정가: 1,200엔+稅
ISBN978-4-902412-27-7

【역사서現代史】

№9

『복귀 후 세대에 전하고 싶은「아메리카세대」에 오키나와가 경험한 것』이케마 카즈타케池間一武

(류큐프로젝트)

『복귀 후 세대에 전하고 싶은「아메리카세대」에 오키나와가 경험한 것』내용

「1945년 4월 1일, 오키나와 본토에 상륙한 미군은, 5일 미니츠포고를 공포했다. 이후, 오키나와는 미군의 점령 아래에 놓여, 일본과 사실상 단절되었다. 오키나와의 전후는 미군의 통치정책에 따라 시작되었다」(본서 52쪽에서 인용). 오키나와의 사람들은 그 27년간을「아메리카세대」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는 일본에 복귀하였다. 이 날을 기분으로, 27년에 이르는 미군통치의 종언을 고한 것이다. 그로부터 45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은 복귀 이전을 알고 있는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본서는,「아메리카세대」를 모르는 세대를 위하여 편집되어 있으며, 「아메리카세대」란 어떤 세대였는지를 당시의 사진과 상세한 해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키나와에 있어서「아메리카세대」란 무엇이었는가. 지금도 같은 사건•사고가 빈발하는 현재, 미군과 오키나와, 일본 정부의 관계에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복귀 후 세대에 전하고 싶은「아메리카세대」에 오키나와가 경험한 것』목차

머리말
1. 일본 복귀 전
통화 전환/류큐 수표/해외이민/류큐 친선/유골 수집/A사인/포령 변호사(布令弁護士)/여권(渡航証明書)
2. 미군 통치
강제 토지 접수/굴욕의 날/류대(琉大) 사건/유미코 짱 살해사건/인민당 사건/고등변무사(高等弁務官)/미야모리초등학교 미군 헬기 추락사건/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의 오키나와 방문/코자반미운동/
3. 일본 복귀 전후
독가스 이송/오키나와반환/헌법수첩/와카나츠국체(若夏国体)/히메유리의 탑 화염병사건/해양 박물관/교통 방법의 변경/국도104호선 넘어 실탄 포격 훈련/불발탄 처리•사고/미군 범죄와 지위 협정/
전후 연표

『복귀 후 세대에 전하고 싶은「아메리카세대」에 오키나와가 경험한 것』서지 정보

저자: 이케마 카즈타케池間一武
발행: 류큐프로젝트
발행일: 2016년 7월 15일
정가: 1300엔+税
ISBN978-4-908598-03-6

・・

【문화文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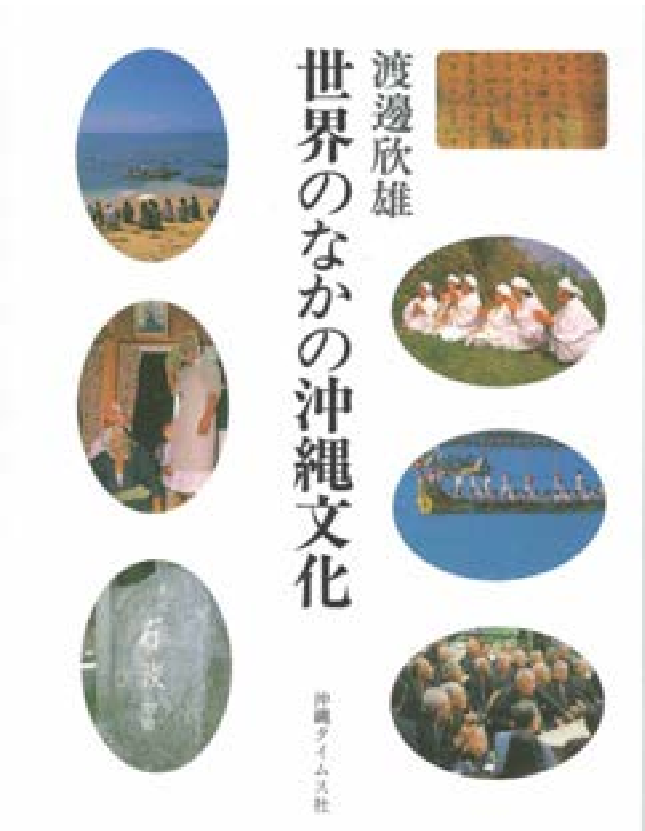
№10 **『세계 속에서의 오키나와문화』와타나베 요시오渡邊欣雄 (오키나와타임즈사)**

『세계 속에서의 오키나와문화』

「세계에서 보이는 오키나와•오키나와에서 보이는 세계」를 테마로, 문중(門中), 위패(位牌), 세골(洗骨), 풍수(風水), 축제, 줄다리기, 사자춤, 명명(命名) 등의 제재를 거론하여 (전 40회), 오키나와의 특징이라 생각되는 그것들이 세계(주로 동아시아)과 어떠한 유사점,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쉬운 문장으로 해설하고 있다. 사진을 많이 게재한 오키나와 민족 입문서를 지향하면서, 오키나와 연구의 축적을 듬뿍 담고 있기에, 그 내용은 깊다. 간행은 1993년이지만 내용은 낡지 않으며 현재도 증쇄를 이어 나가고 있다.

『세계 속에서의 오키나와문화』목차)

밖으로 열린 오키나와문화
오나리신(オナリ神) 자매의 영위
모아시비와 니비치 결혼이란 무엇인가
하즈키 다의적 기호로서의 문신
아카마타•판투•안가마 이상(異相)의 내방자
노인의 문화 오키나와의 장수의 비결
오키나와문화의 세계성 등



『세계 속에서의 오키나와문화』서지 정보)

저자: 와타나베 요시오渡邊欣雄
발행: 오키나와타임즈사
발행일: 1993년 5월 31일 초판 발행
ISBN978-4-87127-009-0

• •

【미술•공예美術・工芸】

№11 **『파초천 이야기』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용수서림)**

『파초천 이야기』내용)

쇼와 17년(1942년)에 사판 한정 책으로 간행된 명저로, 상세한 해설을 첨부한 대망의 신판.「요즘에 이런 아름다운 천은 별로 없습니다.」으로 시작하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파초천 찬가는, 전후의 파초천 부흥의 바이블이 되어, 인간국보•타이라 토시코平良敏子 씨를 낳고, 류큐 직물의 최고의 미로서 널리 세상에 알린 원전이 되었다.

해제는, 민예운동의 미의식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내용에 나누어 그 미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날카롭게 추구하고 있다. (마츠이 타케시松井健 씨는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인류학전공, 현재는 명예교수.)

『파초천 이야기』목차)

머리말/파초천/파초실/이토우미(糸績)/

이토쿠쿠리(糸括)/실염색/카세마키(桛巻)/

카스리가라(絣柄)/베짜기(機織)/

카스리아지(絣味)/파초의(芭蕉着)/

여름옷(夏衣)/직수(織手)/후기

『파초천 이야기』해제 목차)

1.『파초천 이야기』의 위치

2.『파초천 이야기』가 말하는 것

3. 근대 비평으로서의『파초천 이야기』

4,『파초천 이야기』이후

『파초천 이야기』서지 정보)

저자: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해제: 마츠이 타케시松井健

발행: 용수서림

발행일: 2016년 9월 20일

정가: 1,500엔+税

ISBN978-4-89805-189-4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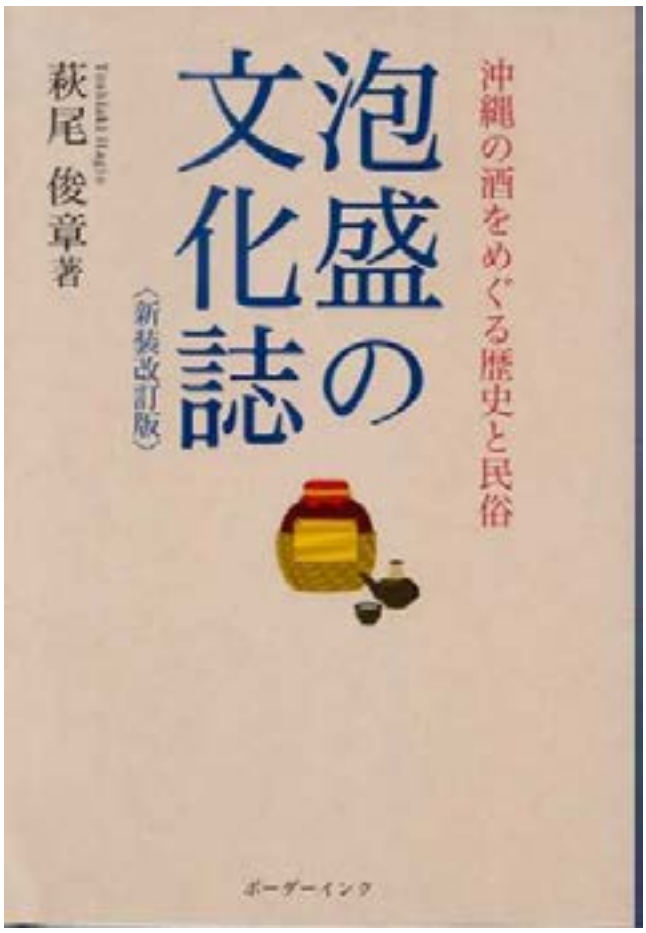
【민속民俗】

№12

『아와모리의 문화지 오키나와의 술을 둘러싼 역사와 민속』하기오 토시아키萩尾俊章 (보더잉크)

『아와모리의 문화지 오키나와의 술을 둘러싼 역사와 민속』내용)

600년 이상 오키나와에서 사랑받아 온 오키나와의 술•「아와모리(泡盛)」는 오키나와가 세계에 자랑하는 증류수이다. 그 아와모리에 관해서 풍부한 문헌 자료와 동남아시아 각국에서의 필드 워크의 성과를 정리한 오키나와의 술문화연구의 집대성이 되는 책이다. 아와모리의 루트는 하나가 아니라, 샴(현 타이)과 중국•푸젠 지역 등 복수의 루트에서 전해진 기법과 아와모리에만 사용되는 효모인「흑색 아스페르길루스」가 결부되어 완성되었다 한다. 사진과 도판 다용.



『아와모리의 문화지 오키나와의 술을 둘러싼 역사와 민속』목차)

머리말

제1장 세계의 술문화

1. 술의 기원/2. 술의 종류/3. 일본의 술역사/4. 아와모리의 원류를 찾아/

제2장 아와모리의 특징

1. 소주와 아와모리/2. 흑색 아스페르길루스와 아와모리/3.「아와모리」의 어원/4. 고주(古酒)의 질의/5. 증류의 기술과 원료미(原料米)/6. 전통적인 주조 민속

제3장 왕국시대의 아와모리
1. 기록에서 보는 아와모리/2. 왕부와 아와모리/3. 에도의 아와모리 사정/4. 왕부의 주조정책/5. 류큐 왕국의 붕괴
제4장 근대의 아와모리
1. 주조의 자유화/2. 각지의 주조와 유통/3. 아와모리 산업의 발달과 주세제도/4. 전시통제화의 아와모리
제5장 현대의 아와모리
1. 전후의 부흥/2. 오키나와민정부의 대처/3. 아와모리 세계의 근대화/4. 복귀 후의 아와모리/5. 아와모리의 현대
제6장
1. 신•축제•술 2. 설화 속의 술 3. 술과 여성 4. 주연(酒宴)과 술의 작법 5. 인생의례와 술 6. 아와모리와 화주(花酒) 7. 술과 약 8. 아와모리와 주기(酒器) 9. 아와모리와 류큐 요리

『아와모리의 문화지 오키나와의 술을 둘러싼 역사와 민속』 서지 정보)
저자: 하기오 토시아키萩尾俊章
발행: 보더잉크
발행일: 2004년 12월 10일 초판 발행/2016년 1월 20일 증보개정판 발행
정가: 1,800엔+稅
ISBN978-4-89982-292-9

【민화民話】

№13 **『오키나와의 민화 21이야기』엔도 쇼지遠藤庄治•아무로 후미오安室二三雄 (류큐신보사)**

『당신이 고른 21세기에 남기고 싶은 오키나와의 민화 21이야기』내용

오키나와는「민화의 보고」라고도 불리는 지역이다. 본서의 글을 담당한 엔도 쇼지 씨(고인)은, '오키나와 지역에서 들은 7만 이야기에서 200화를 뽑아 류큐신보사에 제시하여' 이렇게「머리말」에서 말하고 있다. 실로 민화의 보고라 부르기에 적합한 질과 양이라 할 수 있다. 본서에 게재된 내용도 동물 옛날이야기•본격 옛날이야기•전설 등 여러 갈래로 나뉜다.

본서는 엔도 씨가「머리말」에서 말하고 있듯이, 7만 이야기에서 추출하여, 그것을 다시 오키나와 현민의 공모에 의해서 21이야기가 선정되었다. 오키나와 현민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민화들. 유아부터 초등학생, 일반인도 읽을 수 있게 편집되어, 21세기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기고 싶은 현민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이 고른 21세기에 남기고 싶은 오키나와의 민화 21이야기』목차

머리말

카샤와 코라마타/파리와 참새/참새의 효도/독수리와 돔/12간지의 유래/카마야의 기원/8살에 죽을 운/소금 뿜는 절구/오누이/니누화부시(북극성)의 유래/하브의 보은/케스케의 유래/별모래의 유래/백은당 유래/유리와카 대신/키지나무의 복수/솥을 깬 처녀/후텐마신의 유래/선녀의 아들/볏짚 장자(長者)

『당신이 고른 21세기에 남기고 싶은 오키나와의 민화 21이야기』서지 정보

저자: 글 엔도 쇼지遠藤庄治 그림 아무로 후미오安室二三雄

발행: 류큐신보사

발행일: 2000년 7월 7일

정가: 1,800엔+税

ISBN978-4-89742-082-0

▪ ▪

№14 **『그림책 메추라기 엄마』히라타 에미코•사도야마 세이코** (오키나와시사출판)

『그림책 메추라기 엄마』내용)

타라마지마(多良間島)는, 나하시에서 약 344km 떨어진 섬으로, 이시가키지마와 미야코지마의 거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 타라마지마에 전해지는「우샤가 우마(메추라기 엄마)」라 하는 아소비우타(あそび唄)를 중심으로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아소비우타 특유의 리듬감을 살린 문장은 낭독용으로서도 호평을 받으며, 듣는 아이들도 함께 리듬을 탑니다. 화재로부터 아이들을 지킨 엄마는, 도망가버린 아빠에게「술과 생선이 없으면 용서 못 해」이렇게 화를 내지만, 그 전개로부터 메추라기 엄마의 미소짓게 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림책 메추라기 엄마』줄거리

메추라기가 사는 들판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알을 필사적으로 지키는 엄마와 도망가버린 아빠. 불길이 꺼지자 엄마와 아이들을 찾는 아빠는, 도망간 것을 사죄합니다. 술과 생선이 없으면 용서 못 한다고 화내는 엄마. 그것을 들은 아빠는, 필사적으로 아와모리와 생선을 찾아 엄마의 기분을 풀어줍니다. 아빠가 가져온 것은 아와모리와 생선으로, 아이들의 탄생 축하를 노래와 춤으로 즐깁니다.

『그림책 메추라기 엄마』서지 정보)

글: 히라타 에미코平田恵美子

그림: 사도야마 세이코佐渡山 政子

감수: 엔도 쇼지遠藤庄治

발행: 합자회사 오키나와시사출판

발행일: 1984년 4월 2015년 제2판 2쇄 발행

정가: 762엔+稅

ISBN978-4-903042-23-7

【자연自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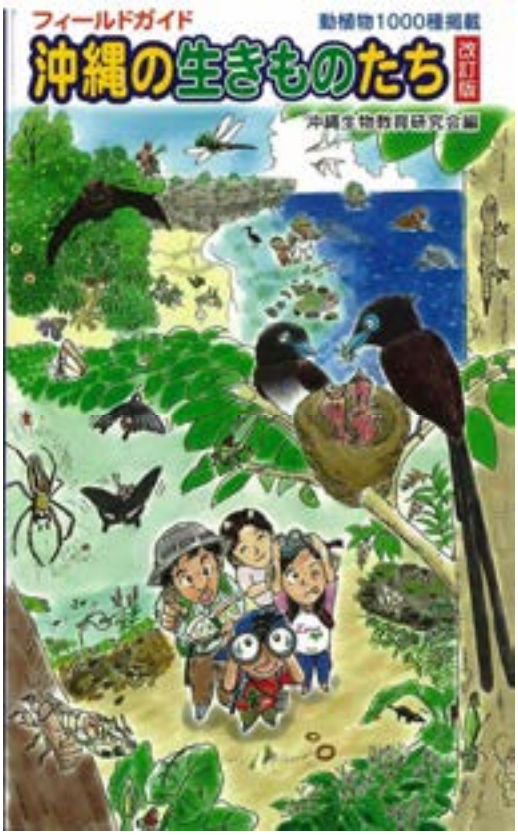
№15 **『필드 워크 가이드 오키나와의 생물들』오키나와생물연구회 (신성출판)**

『필드 워크 가이드 오키나와의 생물들』내용)

해안에서 산지의 삼림까지, 오키나와현내의 다양한 필드에서 볼 수 있는 주요한 동식물 1000종을 컴팩트한 핸드사이즈로 담은 포켓 도감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그다지 소개되지 않는「오키나와의 버섯종」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도감 부분 이외에도, 권두에는「오키나와의 자연환경 특징」과, 고유한 생물이 많은 이유,「육지의 생물상의 성립」등의 해설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에코 투어와 자연관찰회에도 잘 어울리는 오키나와의 자연관찰입문서의 결정판입니다.

『필드 워크 가이드 오키나와의 생물들』목차)

•오키나와의 자연환경의 특성
•식물
오키나와의 식물상과 식생의 개요/해조류•해초류/
해안의 식물(모래사장)/해안의 식물(암초)/
맹글로브의 식물/습지•물가의 식물/저지림의 식물/
류큐소나무의 숲/메밀짓밤나무의 숲/
•버섯
버섯의 동료
•동물
동물과의 개요/포유류/새의 동료/거북이•도마뱀•뱀들/
개구리•도롱뇽의 동료/나비의 동료/나방의 동료/
메뚜기의 동료/잠자리의 동료/매미의 동료/
딱정벌레의 동료/개미의 동료/말벌의 동료/
하천의 물고기•게•새우/산호초 해안의 물고기/
바닷가의 동물들/숲 속의 작은 동물들/
집 주변에 동물들



『필드 워크 가이드 오키나와의 생물들』서지 정보)

편집: 오키나와생물교육연구회
발행: 신성출판주식회사
정가: 2,000엔+稅
ISBN978-4-905192-30-5

류큐호총서29『산호초에 살아가는 해녀 류큐의 바다의 생태민족학』이키미치 토모야秋道智彌 (용수서림)

№16 『산호초에 살아가는 해녀 류큐의 바다의 생태민족학』내용)

류큐를 특색 짓는「산호초」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은, 일본과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을 만들어 왔다. 류큐의 바다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은 자연과 어떻게 마주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의 싸움이며 교류이다.

본서에서는 그 실태를 극명하게 기록하여, 조업문화, 노동실태, 경제에서 식문화 등의 민속지를 밝히고, 류큐의 미래를 전망한다. 2016년 이하후유상 수상.

『산호초에 살아가는 해녀 류큐의 바다의 생태민족학』목차)

제1장 류큐의 바다와 도서(島嶼)세계
제2장 바다의 민속지와 언어적 세계
제3장 류큐의 조업문화
제4장 류큐의 바다와 구역
제5장 바다의 경제와 식문화
제6장 바다의 경계와 생태•민속
제7장 코먼스의 바다의 미래

『산호초에 살아가는 해녀 류큐의 바다의 생태민족학』서지 정보)

저자: 이키미치 토모야秋道智彌
발행: 용수서림
발행일: 2016년 9월 10일
정가: 6,400엔+稅
ISBN978-4-89805-182-5

【요리料理】

№17 **『관리영양사 이제나 카에의 맛있는, 간단 Okinawa soup』이제나 카에伊是名カエ**

(동양기획)

『okinawa soup』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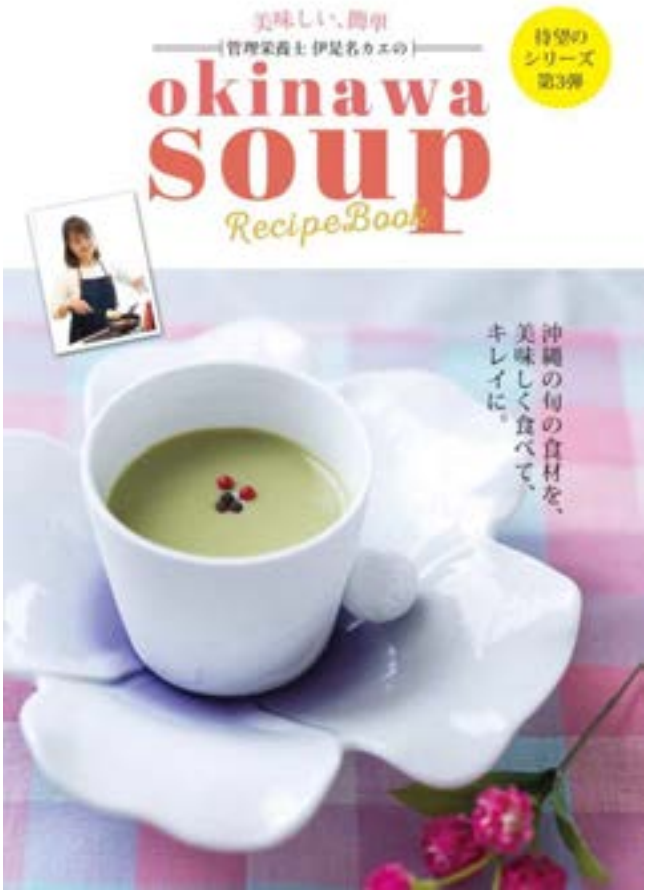
이제나 카에 선생의 대망의 시리즈 제3탄

이번에는「스프」레시피집입니다.

포르토편집부가 제작을 의뢰한 이제나 카에 씨의 레시피북 신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평범한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게다가 영양만점인 31레시피를 소개. 레시피 외에도 섬채소 소개와 이제나 카에 씨의 인터뷰, 요리의 기본(칼질, 보존, 준비) 등의 페이지도 게재.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완전보존판 스프책.



『okinawa soup』목차)

이제나 카에 권두 인터뷰

스프의 감춰진 편리 식자재

요리의 기본

오키나와가 자랑하는 섬채소
봄의 스프 레시피
근대 포타주/현미 넣은 오키나와산 인삼 스프/봄양배추와 섬락교 포타주/프레시 스위트콘 포타주/말랑한 아사국/파프리카의 크림 만들기/두부가 따뜻한 두유 스프
스프의 감춰진 식자재
여름의 스프 레시피
오크라 스프/동아 스프/건더기가 있는 스이모노/ 복숭아색 냉동 포타주/이국적 오키나와/수박과 키위 후르츠의 냉스프/꽃잎 만발 아시안 스프/
좋은 식자재를 위하여 -어패류편-
가을의 스프 레시피
친누리 포타주/섬호박 포타주/우엉 스프/버섯과 생강의 따끈따근 두유 스프/인디언 시금치 크림 스프/밤과 적색고구마 스프/적색고구마와 섬채소국 만들기/고구마 줄기 포타주 스프/생선국

『okinawa soup』서지 정보)
저자: 이제나 카에
발행: 편집공방 동양기획
발행일: 2016년 7월 30일
정가: 1,000엔+稅
ISBN978-4-905412-57-1 C2077

№18 **『집에서 우치나밥상』하야카와 유키코 (보더잉크)**

『집에서 우치나(오키나와)밥상』 내용)

태양을 가득 머금고 자란 섬채소와 바다의 복을 듬뿍 사용하여,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들어 온 밥상. 장수로 유명한 오키나와 사람들을 떠받쳐 온 것은 오키나와의 가정요리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의 식자재와 레시피를 올컬러 일러스트로 소개합니다.

『집에서 우치나밥상』 목차)

가정의 맛 -들어가며-

【우치나밥상의 기본】

삶은 삼겹살을 상비하자!

【여름】

여주/도시락에 어울리는 ‘우치나 반찬’/

수세미/동아/공심채/오크라/두부

【가을】

시콰사/고구마 줄기/고구마/감초/

겨자/파파야/콩나물/소면•후/조미료

【겨울】

밭고구마/무의 다양한 이용법/

무, 무잎/근대/섬당근/아치문

【봄】

락교/기누라/쑥/우엉/갯고들빼기/

갯기름나물/생선/회향풀/해조

【칼럼】

박종류의 계절/세 가지의 ‘본다’/

각각의 일품/베란다의 텃밭/건강해져라/

아침죽 추천/음식을 옮길 때에… ‘태양/

이리치의 일곱가지 변화/

오키나와 밥상으로 가자!/

『집에서 우치나(오키나와)밥상』 서지 정보)

그림과 글: 하야카와 유키코

발행: 보더잉크

발행일: 2016년 9월 초판 제1쇄 발행/2017년 5월 2쇄 발행

정가: 1,800엔+税

ISBN978-4-89982-305-6

№19 『**토쿠모토 카요코의 착한 채소**』**토쿠모토 카요코徳元佳代子 (류큐신보사)**

『토쿠모토 카요코의 착한 채소』내용

인간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식(食). 세상에는 수 많은 식자재가 팔리고 있습니다. 본서는, 그 식자재 중에서 사계의 채소에 초점을 맞추어, 그 재배방법과 요리방법까지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션과 아파트에서도 가능한 플랜터 재배방법을 게재하였으므로, 기를 장소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채소 소믈리에 상급 프로인 토쿠모토 씨 특유의 지식과 채소에 관한 애정으로 넘쳐흐르는 해설문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직접 채소를 기르고, 수확하고, 요리하고, 가족과 드시지 않겠습니까? 권말의 채소재배달력도 초심자에게는 기쁜 정보일 것입니다.

『토쿠모토 카요코의 착한 채소』목차

봄채소

미니토마토/가지/20일파/둥근오크라/섬고추/

여름채소

여주/고구마 줄기/새싹채소/바질/푸른 차조기/

공심채/근대/멜로키아/씀바귀/

가을채소

래디쉬/감자/양파/미니당근/마늘/순무/

쑥갓/섬락교/시금치/두묘(豆苗)/

샐러드 채소/파셀리/

겨울채소

상추/루꼴라/풋콩/리프 레터스/딸기/

쐐기풀/겨자잎/기누라 바이칼러/

후기

게재 목차

권말 자료 (채소제배달력)

『토쿠모토 카요코의 착한 채소』서지 정보)

저자: 토쿠모토 카요코徳元佳代子

발행: 류큐신보사

발행일: 2017년 6월 1일

정가: 1,600엔+稅

ISBN978-4-89742-2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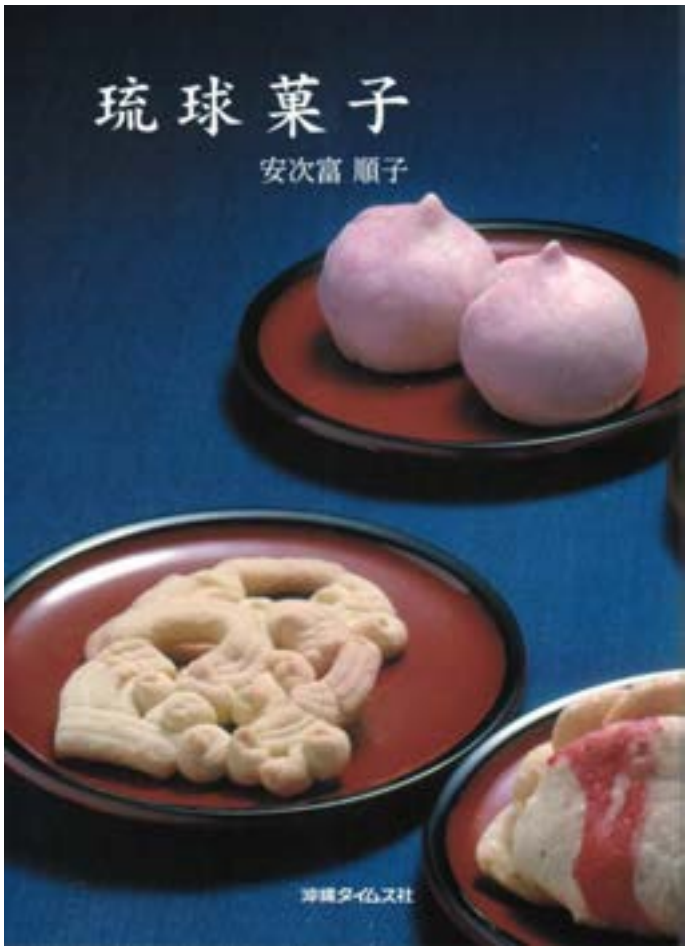
№20 **『류큐과자』아시토미 쥰코安次富順子 (오키나와타임즈사)**

『류큐과자』내용)

류큐 요리 책은 수없이 많지만, 과자, 특히 왕조과자에 특화된 유일한 한 권이다. 문헌에 이름과 재료는 있지만 만드는 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현재에 전해지지 않은 과자에 관해서, 고로(古老)로부터의 취재와 일본•중국•남만의 유사 과자의 연구까지 재현하여, 그 레시피와 유래 등을 해설한 올컬러판. 단순한 소개에 그치지 않고, '대접' 의 문화와 마음마저 전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류큐과자』목차

왕조과자
미즈야마부키(水山吹)
하나볼(花ぼうる)
마츠카제(松風)
타우치쵸(闘鶏餃)
사테이앙(砂汀あん)
구앙(光餅)
친스코(チンスコウ)
무치(ムーチー)
옛 공물과자 지금의 공물과자
책봉사 향응요리와 류큐과자
서민의 과자 (사타안타기/포포/후챠기)
왕조과자논문 2편 외



『류큐과자』서지 정보)

저자: 아시토미 쥰코安次富順子
발행: 오키나와타임즈사
발행일: 2017년 7월 28일 초판 발행
정가: 2,200엔+稅
ISBN978-4-87127-243-8

【지역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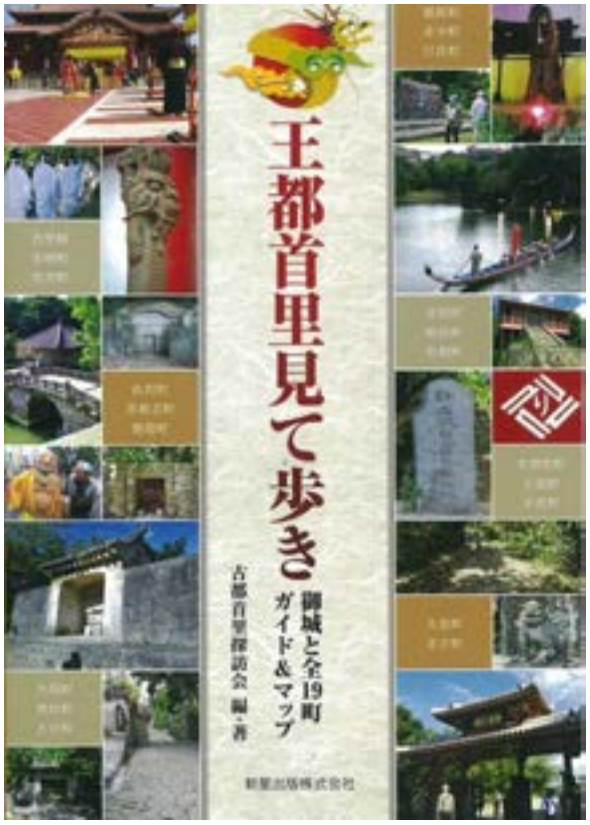
№21 **『왕도 수리 보며 걷기 가이드&맵』고도수리탐방회 (신성출판)**

『왕도 수리 보고 걷기』~성과 전 19마을 가이드&맵 내용)

류큐의 왕도•수리에는, 풍부한 지하수가 가져오는 평화와 정적한 삶이 있었다. 성의 동쪽(首里三箇)에서는 아와모리, 북쪽과 서쪽에서는 류큐화지(琉球和紙), 남쪽은 두부와 콩나물이 만들어졌다. 사적과 배소(拝所)를 찾아 걷는 사람의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끊이지 않지만, 현지인들에게 조차도 그러한 장소와 유래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서는 2006년에 슈리공민관에서 열린 시민강좌「슈리 고도 재발견」의 수료생에 의한 고도슈리탐방회가 150회의 걸친 잡사를 기반으로 사적과 골목의 해설, 현재의 지도를 수록한 충실한 한 권입니다.

『왕도 수리 보고 걷기』~성과 전 19마을 가이드&맵 목차)

슈리성(24곳)/슈리아카타쵸(18곳)/
슈리아카히라쵸(17곳)/슈리이케하타쵸(8곳)/
슈리이시미네쵸(首里石嶺町12곳)/
슈리오오나쵸(18곳)/슈리오오나카쵸(13곳)/
슈리킨죠쵸(22곳)/슈리기보쵸(18곳)/
슈리쿠바카와쵸(15곳)/슈리사키야마쵸(18곳)/
슈리사무가와쵸(15곳)/슈리스에요시쵸(18곳)/
슈리타이라쵸(21곳)/슈리테라쵸(22곳)/
슈리토노쿠라쵸(21곳)/슈리토바루쵸(8곳)/
슈리토리호리쵸(19곳)/슈리마와시쵸(15곳)/
슈리야마가와쵸(20곳)



『왕도 수리 보고 걷기』~성과 전 19마을 가이드&맵 서지 정보)

편저: 고도슈리탕밤회
발행: 신성출판주식회사
발행일: 2016년 3월 31일 2016년 6월 제2쇄 발행
정가: 1,500엔+稅
ISBN978-4-905192-78-7

№22 **『나의 <나하 마을>유랑기 추억과 망상의 마을 걷기•자전거 산책』시죠 카즈히로新城和博 (보더잉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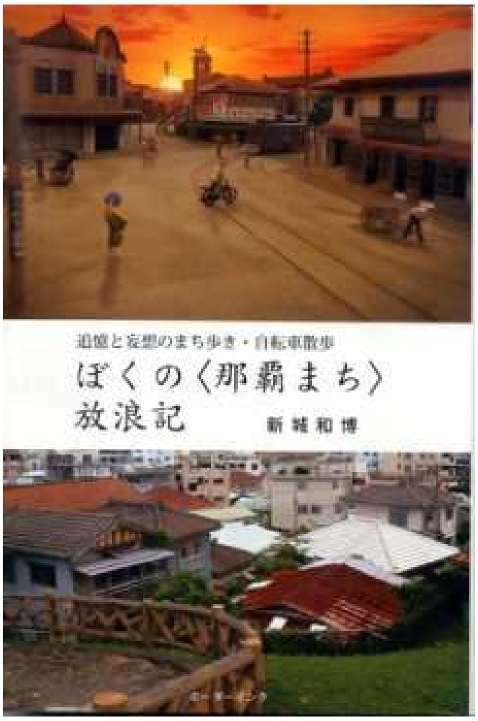
『나의 <나하 마을>유랑기 추억과 망상의 마을 걷기•자전거 산책』내용)

변화하는 마을, 잃어버린 마을, 그것이 <류큐 마을>. 오키나와•나하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자가, 복귀 후의 나하, 전쟁 전의 나하의 풍경, 흔적을 찾아 홀로 걸으며 엮은 대망의 <마을 걷기> 에세이.

류큐왕조시대부터의 역사가 깃든 항구 마을, 오키나와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는 나하는, 전쟁에서 소명했다. 미국통치아래, 복귀 후에 부흥•발전한 나하는, 그립고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나하 마을> 의 전쟁 전의 옛 지도와 복귀 후의 기억을 단서로, 주변의 골목의 길모퉁이을 꺾으며 마을 걷기•자전거 산책(포터링) 하였더니, 끝없이 새로운 풍경이 보인다. 강약을 조절한 오키나와를 말하는 에세이. <나하 마을> 의 풍경 사진 다수 수록. 마을 걷기, 오키나와•나하의 로컬 가이드로서도 최적.

『나의 <나하 마을>유랑기 추억과 망상의 마을 걷기•자전거 산책』목차)

머리말 <나하 마을> 을, 나풀나풀 유랑하다
골목의 작은 길모퉁이를 돌아서 2007~2009
나하의 마을을 뒤돌아 노 저으며 건너다 2011~2014
후기



『나의 <나하 마을>유랑기 추억과 망상의 마을 걷기•자전거 산책』서지 정보

저자: 시죠 카즈히로新城和博
발행: 보더잉크
발행일: 2015년 5월 25일 발행
정가: 1,600엔+稅
ISBN978-4-89982-278-3

▪ ▪

№23 **『대만 소개(台湾疎開)「류큐난민」의 1년 1개월』미츠다 요시타카松田良孝 (남산사)**

『대만 소개(台湾疎開)「류큐 난민」의 1년 1개월』

태평양전쟁 말기의 1944년 7월, 일본 정부는 긴급 각의에서 난세이 제도(南西諸島)의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토쿠노시마(徳之島), 미야코(宮古), 이시가키(石垣), 5개의 섬의 노인과 어린이 부녀자의 대만 소개를 결정했다. 본서는 이때 무연고 소개에 관해서 이시가키에서 대만의 중남부에 소개된 3인을 중심으로, 출발에서 소개 처로서의 입거, 식사와 병, 2차 소개에서 식량난에 허덕이는 모습, 패전을 맞이하여 대만인에 둘러싸여 공포와 구조된 이야기, 그리고 인양 항인 난팡아오(南方澳)로부터 섬에 귀환하기까지의 발자취를 극명하게 추적하여, 대만 소개의 실태를 밝힌 첫 저작이다. 패전 직전에는 어린 남매가 먹을 것을 구하러 떠도는 모습이 가슴을 울린다. 대만 정부는 이러한 소개자를「류큐 난민」이라 불렀다. 이도의 전쟁을 얘기하는 중요한 책이다.

『대만 소개(台湾疎開)「류큐 난민」의 1년 1개월』목차)

제1부 개소

서장/제1장 '출발'/제2장 소개지에서 -신영新営-/제3장 차의 마을 -룽탄(龍潭)-/제4장 2차 소개/제5장 종전/제6장 사카에마루 사건(栄丸事件)/제7장 인양/종장

제2부 개소지를 방문하다

자리(佳里)/신잉(新営)/난터우(南投)/난파아오(南方澳)/마더우(麻豆)/룽탄(龍潭)

제3부 소개자 귀환선의 운항과 대만오키나와동향회연합회

『대만 소개(台湾疎開)「류큐 난민」의 1년 1개월』서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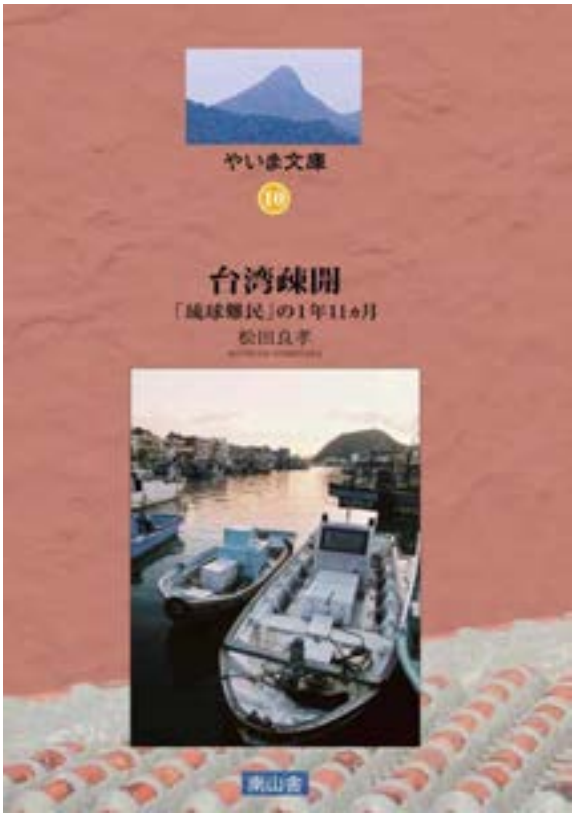
저자: 미츠다 요시타카松田良孝

발행: 남산사

발행일: 2010년 6월 1일

정가: 2,300엔+稅

ISBN978-4-901427-20-3



№24

『이시가키지마에서 대만을 걷다』쿠니나가 미치코国永美智子•마츠다 요시타카松田良孝•노이리 나오미野入直美 (오키나와타임즈사)

『이시가키지마에서 대만을 걷다』내용)

이시가키지마에서 대만까지 236km, 요나구니지마에서는 111km. 파인애플산업과 토지공제 등, 이시가키지마에 남은 대만문화의 흔적을 찾아 걸으며, 양지역에 오래된 교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대만』을 테마로 한 이시가키지마의 걷는 법」과,「야에야마에 사는 대만계 이민」「식민지 대만으로 넘어간 오키나와 사람들」등의 증언과 자료 등으로 엮은 유니크한 이시가키지마 가이드북. 본서를 손에 들고 걷다 보면, 보다 더 이해가 깊어질 구성으로 되어 있다. 올컬러판.

『이시가키지마에서 대만을 걷다』목차)

「대만」을 테마로 한 이시가키지마의 걷는 법
야에야마를 잘 모르는 당신에게
야에야마에 사는 대만계 이민
식민지 대만으로 넘어간 오키나와 사람들
사람들을 잇는 바다, 가르는 바다
맵&퀴즈 이렇게 가깝다니! 이시가키지마와 대만

『이시가키지마에서 대만을 걷다』서지 정보)

저자: 쿠니나가 미치코国永美智子•노이리 나오미野入直美•마츠다 히로코松田ヒロ子 마츠다 요시타카松田良孝•미즈타 켄지水田憲志
발행: 오키나와타임즈사
발행일: 2012년 3월 3일 초판 발행
정가: 1,500엔+税
ISBN978-4-87127-203-2

№25 **『오키나와•국제거리 이야기』오오하마 사토시大濱聡 (유이출판)**

『오키나와•국제거리 이야기』내용)

「기적의 1마일」이라 불리는 국제거리. 옛날에는 밭 가운데에 있는 외길이었다. 오키나와전에서 나하는 잿더미가 되고, 과거의 시가지는 미군에 점령당했다. 이 외길은 나하 부흥의 중심이 되어, 어느새 국제거리라 불리게 되었다. 길가에 생긴 영화관「어니파일국제극장」이 국제거리 이름의 유래이다. 더욱이 암시장에서 시작된 시장거리는「평화거리」라 이름이 붙여져, 이 또한 영화관「평화관」에서 유래되었다.

1950년대, 도시계획이 행해져, 현재 볼 수 있는 가로수가 형성되었다. 도시가 생성되는 과정을 다이나믹하게 그린 것이 본서이다. 시대는 변하여, 영화관은 모습을 감추고, 백화점도 지금은 없다. 거리는, 오키나와를 방문한 관광객들로 넘치며, 기념품 가게의 호객 소리와 민요가 들려온다.

도시는, 살아있는 것. 오키나와의 패전사와 중첩되는 마을의 역사를 읽어 보길 바란다.

『오키나와•국제거리 이야기「기적의 1마일」이라 불리는 1마일』목차)

1 나하•전후의 시작
2 들판의 외길이었던 국제거리
3 사람들에게 오락을 -전후 첫 영화관 건설-
4 국제거리의 루트 아니파일국제극장
5 국제거리에 개업한 가게
6 밀무역•오키나와 사람의 강인함과 에너지
7「국제거리」탄생
8 그리고「기적의 1마일」이라 불렸다
9 국제거리를 향하여! 아파트 전쟁
10 안녕 국제거리
11 국제거리 가로수도로확장계획
12 확장공사 시작
13 뉴 마키가도 개통
14 명실공히 나하시의 국제거리

『오키나와•국제거리 이야기「기적의 1마일」이라 불리는 1마일』서지 정보)

저자: 오오하마 사토시大濱聡
발행: 유이출판
발행일: 1998년 1월 20일
정가: 1,800엔+税
ISBN4-946539-01-8

▪ ▪

【공수空手】

№26

『우에치류 공수도(上地流空手道) ~사진과 해설로 보는 우에치류의 형(形)~』시마부쿠로 유키노부

島袋幸信 (동양기획)

『우에치류공수도(上地流空手道) ~사진과 해설로 보는 우에치류의 형(形)~』내용)

우에치류의 팔형(形)을, 분해 사진과 일영 양표기로 해설.

삼전(三戰)에서 36까지, 우에치류의 팔형 모든 분해 사진을, 일본어•영어 양표기의 캡션으로 알기 쉽게 해설. 저자인 시마부쿠로 유키노부 씨는 프랑스 재주로, 우에치류공수도협회 유럽지부의 대표이다. 유럽에서의 우에치류 보급의 선구자이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판 형의 설명서를 출판하였고, 각방면에서의 요구에 의해 이번에 일영 양표기로 해설서를 내게 되었다.

우에치류의 역사에 관한 간단한 설명도 있으며, 우에치류의 입문서로서는 물론이거니와 오키나와 전통 공수 상급자의 참고에도 도움이 되는 한 권.

『우에치류 공수도(上地流空手道) ~사진과 해설로 보는 우에치류의 형(形)~』목차

머리말　Forward 2

上地流空手道略史　A Short History of Uechi-Ryu Karate-Do 5

三戰　SANCHIN 9

完子和　KANSHIWA 17

完周　KANSHU 27

十戰　SEICHIN 39

十三　SEISAN 53

十六　SEIRYU 69

完戰　KANCHIN 81

三十六　SANSEIRYU 95

맺음말　Post Script 108

『우에치류공수도(上地流空手道)

~사진과 해설로 보는 우에치류의 형(形)~』서지 정보)

저자: 시마부쿠로 유키노부 島袋幸信

발행: 편집공방 동양기획

발행일: 2017년 7월 1일

정가: 1,500엔+稅

ISBN978-4-905412-74-8 C3375

【문학文学】

№27 『배드 데이』쿠로 효黒ひょう (오키나와타임즈사)

『배드 데이』내용)

2017년 43회를 맞이만 신오키나와문학상. 오키나와에서 본격적인 소설 작가의 발굴을 목적으로 창설되어, 마타요시 에이키又吉栄喜, 노도루마 쥰目取真俊의 아쿠타카와상 작가를 배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신오키나와문학상 수상작을 단행본화하는 시리즈<타임즈문학총서> 중의 한 권으로, 근년의 수상작 중에서도 평이 좋은 작품이 본서이다. 27세의 주인공이, 기묘하게 만나게 된 「오지」에게 부탁 받은 대로 실버타운에 있는 여성을 만나러 간다. 그녀가 말한 「전쟁」이라 하는 단어에서 보인 것이란—. 70년 전과 현재가 교차하는 전개를, 쿨한 템포가 느껴지는 문체로 써 내려간 오키나와문학의 새로운 걸작. 저자의 역량을 다양하게 선보이는 「타마리바(魂り場)」라 하는 이색작도 수록하고 있다.

『버드 데이』서지 정보)

저자: 쿠로 효黒ひょう
발행: 오키나와타임즈사
발행일: 2016년 1월 19일 초판 발행
정가: 본체 700엔
ISBN978-4-87127-230-8

№28　　『쇼타와 가지마루』 **노하라 나오미野原なをみ (포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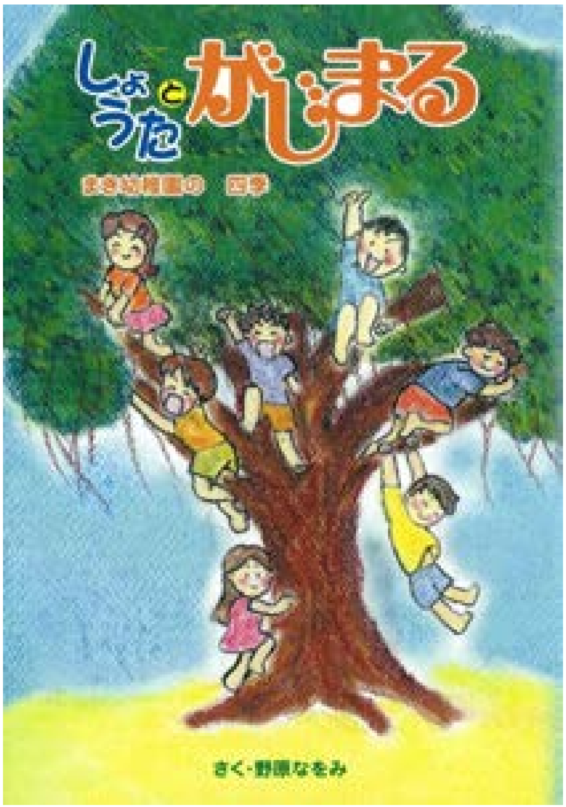
『쇼타와 가지마루』 내용)

　봄에서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로 변해가는 사계와 함께 성장해 가는 「쇼타」와 키지무나(전설의 생물)인 키무와의 교류의 모습을 그린 아동문학서.

「쇼타」는, 올해부터 마키유치원의 졸업반. 쇼타는 어느 봄날, 가장 좋아하는 그네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 유치원에 갑니다. 제일 먼저 타게 된 쇼타는, 흔들 흔들, 붕 붕, 그네를 탑니다. 그런 쇼타의 귓속에 「야, 쇼타야」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쇼타와 귀여운 요괴 「키지무나인 키무」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린 쇼타와 키무의 우정과 교류를 통해서, 쇼타는 소년으로 가는 계단에 올라갑니다.

『쇼타와 가지마루 -마키유치원의 사계-』 목차)

마키유치원
봄
　쇼타와 가지마루
　봄 소풍
　키지무나와 놀다
여름
　얀바루시사
　밤의 탐험대
가을
　쇼타와 꽃피는 산
　쇼타와 눈사람
　쇼타 두 사람
졸원



『쇼타와 가지마루 -마키유치원의 사계-』 서지 정보)

저자: 노하라 나오미野原なをみ
발행: 유한회사 포레스트
발행일: 2008년 3월 31일
정가: 1,200엔+税
ISBN978-4-9903112-3-0

. . . .

№29 **『미국이 있는 풍경』나가호도 마사노리仲程昌徳 (니라이사)**

『미국이 있는 풍경』내용)

페리 제독 내항에 관한 소설 네 편(타이쇼•메이지 초기•미군통치하시대•시정권 반환 후에 각각 발표된 것)을, 시대의 변혁에 따라 변화하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시작하여, 오키나와 전후의 미국과 오키나와의 관계, 미군 병사와 오키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소설 안에서 읽으며 풀어간다.

그리고 오키나와의 작가들이 정성껏 그린 미국인의 모습과 그것을 마주하는 오키나와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1945년 이래 발효된 많은 소설 중에서, 미국인과 미군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정성껏 설명하며, 각각의 퍼즐을 끼워 맞춰 오키나와가 가지는 또 하나의 풍경을 끌어내어 보여주는 책이다.

『미국이 있는 풍경 -오키나와 문학의 영역-』목차)

1.「미국」을 읽다
동경과 충의와 폭력과
-페리 제독 내항과 오키나와의 작가-
「삽화」를 다시 읽다
-「2세」소설-
평화공작에서 친선활동으로
-전후 오키나와와 미국 -이문화 접촉의 시동-
오키나와•미국•야마토
-류큐신보 단편소설집•가작 20년-
복귀 후의 문학
2.「미국」을 보다
「미국」이 있는 풍경
-전후 소설을 걷다-

『미국이 있는 풍경 -오키나와 문학의 영역-』서지 정보)

저자: 나가호도 마사노리仲程昌徳
발행: 니라이사
발행일: 2008년 9월 20일
정가: 1,800엔+税
ISBN978-4-931314-68-9

【사진집写真集】

№30 **『쿠나츠요(来夏世) -기도하는 섬들 야에야마-』오오모리 카즈야大森一也 (남산사)**

『쿠나츠요(**来夏世**) -기도하는 섬들 야에야마-』내용)

야에야마의 섬들은, 풍년제와 추수제, 시치(節祭) 등 다양한 전통제례행사가 있다. 과속화가 진행되는 이도의 작은 섬에서도, 사람이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 한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제례공간의 중심을 채우는 우타키(성지)에서는 츠카사(司)라 불리는 사제에 의해 신과 교신이 이루어지고, 혹은 신을 소환하는 해상의 제사가 반복되어 왔다. 저자는 사람과 신과의 교류에 이끌려, 제례공간으로 다니기 시작한다. 그러나「사람과 신의 교류는 특수한 성지, 특정한 사제들 만의 것이 아니라, 야에야마에 사는 누구라도 선조로부터 소중하게 이어온 삶과 함께 하는『기도』의 빛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를 깨닫는다. 본서의 작품에는 어느 곳에서도 경건한 기도가 있으며「조용한 빛」으로 넘치고 있다.

『쿠나츠요(**来夏世**) -기도하는 섬들 야에야마-』목차)

•세상을 운반하는 배/•세상은 열매 맺고 씨는 갈라질 것이다/•초여름이 되면/•쿠나츠요에 소원을 담아서
•달의 대낮에/•하얀 여름이 지나갈 적에/•기도의 세월
(사진작품점수 계 160)
•「세상은 열매 맺고」고찰 오키나와현립예술대학 하테루마 에이키치 교수에 의한 논문 고찰
•촬영 메모/•후기/•야메야마 제도 위치도

『쿠나츠요(来夏世) -기도하는 섬들 야에야마-』서지 정보)

저자: 오오모리 카즈야大森一也
발행일: 2014년 8월 1일
정가: 2,900엔+稅
ISBN978-4-901427-31-9